

'100년의 전통' 담양 한재초 총동문 21일 한마당 축제

서수용 회장의 통큰 기부... 불거리·즐길거리 풍성한 축제 밑바탕

“600년 된 아름다드리트리나무(천연기념물 제284호) 아래, 다함께 모입니다”



서수용

전남 담양 한재초등학교(총동문회장 서수용) 동문들이 오는 21일 모교에 모여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개교 100주년을 두 해 앞둔 이번 한마당 축제는 여느때와 달리 행사 규모나 참석자를 볼 때 매머드급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문을 연 뒤 1만4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의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넘다. 삼산초, 옥산초 등 주변 학교와 통폐합을 거쳐 현재의 교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겸한 연례 행사라



지난해 체육대회 모습.

지만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이자 잔치판이다. 내로라하는 유명 가수공연에 다양한 먹을거리, 즐길거리까지 더해져 축제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 학교 동문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해 최형식 담양군수, 지방의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행사에 5천만원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3천만원을 행사에 보냈다. 동문 골프대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3천만원을 내놓아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동문들이 항상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교정의 느티나무는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개교 100년을 앞둔 동문들의 축제 현장을 함께한다. 서 회장은 “오장한 모습 그대로인 모교의 느티나무와 같이 이 시대 최고의 동문들이 한자리에서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정든 고향과 동문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동문, 주민 등 2천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석된 동문에게는 고급 뷔시계가 지급되고 자전거, 세탁기, TV 등 푸짐한 경품이 참석자에게 또다른 행운을 안겨준다. 풍성한 행사 준비는 거액의 선뜻 내놓은 서수용 총동문회장의 통큰 모교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행사에 5천만원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3천만원을 행사에 보냈다. 동문 골프대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3천만원을 내놓아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동문들이 항상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교정의 느티나무는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개교 100년을 앞둔 동문들의 축제 현장을 함께한다. 서 회장은 “오장한 모습 그대로인 모교의 느티나무와 같이 이 시대 최고의 동문들이 한자리에서 소중한 만남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정든 고향과 동문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hanmail.net



광주도시공사, 소외계층에 비엔날레 입장권 지원

광주도시공사는 17일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500매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한다”며



빛고을 부동산 포럼, 지역 현안지역 산업시찰

빛고을 부동산 포럼(회장 정병운)이 13일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 및 목포지역 현장을 방문해 개발관련 정보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이전 예상지역과 주변관광개발지역인 돌머리·홍동해수욕장, 조그나루와 송천리 해수욕장 등에 이어 목포 케이블가(유달산-고하도) 현장과 근대역사관, 오통지구 개발현장을 두루 살폈다. 한편 광주 최대 현안인 광주공항은 민간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은 2023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광중 전범찬 군 등 광주요리학원팀 월드푸드콘테스트 1등

광주 신광중학교(교장 안수미) 2학년 전범찬 군을 포함한 광주지역 9명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요리대회에서 전일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개최된 2018월드푸드콘테스트에 참가했다. 국제대회인 월드푸드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리아 푸드 트렌드 페어'로 개최됐지만 올해 명칭을 변경했다. 총 20개국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대회에서 광주팀은 오명진 광주요리학원장을 주축으로 전범찬(신광중), 이민호(광주제일고), 양동국(광주제일고), 윤주성(정광고)군이 '복합사 소스를 곁들인 된장으로 양념한 갈비'를 주메뉴로 한식 퓨전 3코스를 선보였다. 또 김재형(조선대), 정일상(호남대), 김성연(금호고), 김동규(조선대부고), 전인택(동신중)군은 '야생버섯 소스를 곁들인 저온 조리된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웰빙탕'을 주메뉴로 한 기금류 3코스를 선보였다. 특히 신광중 전범찬군이 속한 한식 퓨전 3코스에서는 현대적인 조리방법과 독창적인 맛 부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고흥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캠페인
고흥경찰서(서장 임경철)는 지난 16일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교통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고흥=백승우기자 dydw8199@hanmail.net



구례경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구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6일 출근길 구례경찰서 앞 로타리에서 '모든 도로 전차석 안전띠의 무화'와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를 홍보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hanmail.net

본보 박희서 전 대표이사 소천

박희서 전 무등일보 대표이사가 17일 소천했다. 향년 78세. 박 전 대표는 1967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뛰어들어 후 1988-2000년 본보에 재직하며 사회부장, 부국장, 대표이사, 논설교문, 무등일보 사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본보가 1999년 폐간 위기 후 속삭일 당시(주)하나로문화 무등일보 대표이사를 맡아 정론보도와 경영안정에 전력분투하는 등 무등일보 복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희서

박 전 대표는 당시 무등일보 70여명의 기자와 사원, 시민 주주들의 참여로 폐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정론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1년 퇴직 후 민화운동관련자 선정을 비롯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지회 창립준비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

주지회 부회장, 한국기독교교단 연합회 광주지회 사무국장, 광주계림교회장로, 한국국제기독교연합회 전국회장 등을 맡아 봉사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힘썼다. 노년에도 지역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원로로서 역할을 다 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연심 여사와 친원(목포세한종합병원 대표원장)·찬훈(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지현(재미)씨 등 2남1녀가 있다. 발인 19일 오전 10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010-6460-8838, 062-220-3352)

열정과 헌신적 대민봉사 민중의 지팡이 귀감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최판호 팀장



최판호

민생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경찰업무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 변화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손과 발이 대운 헌신적인 민중의 지팡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주며 공직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경위 최판호(57) 팀장이다. 1987년 경찰에 투신한 최 팀장은 경찰생활 대부분을 민생치안 최 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삶과 애환 생사고락을 함께한 헌신적 대민봉사자로 지역민의 편익증진 집단민원 사전파악과 중재 역할로 전남지방경찰청 지역경찰마스터 친절봉사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된 바 있다. 그는 경찰업무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현장 상황 역지사지정신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가슴에 새기며 섬김 치안 활동을 전개 했다. 최 팀장은 그동안 기관 사회단체 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감사장 공로패 표창장 등 30여회를 수상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경찰이다. 나주=황승환기자 h6450909@nate.com

솔라시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스토리텔링 협약

솔라시도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이하 솔라시도)은 16일 사업현장사무실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과 협약을 갖고 산업과 관광을 이룰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솔라시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솔라시도에서 진행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자율전기차 등의 첨단 인프라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 도입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환기자 ysh6873@hanmail.net



금음감독원, 보험범죄예방 가두캠페인
금음감독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조운근)은 17일 광주 유스퀘어 일대에서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보험범죄 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보훈병원,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병원장 김재형)은 지난 16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센터장 김경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형 광주보훈병원장, 김경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장, 성문수 광주보훈병원 운영실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북한이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뜻이 모아져 이루어졌다. 도철원기자 repc333@naver.com



송원초 '창의력 대회 개최' 눈길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최근 '2018 Odyssey of the mind 광주송원 창의력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수업을 통해 각 학급에서 대표로 선발된 7명이 축제 형태로 실력을 뽐냈다.

무등 기사판 Tel: 606 7725 e-mail: mcn007@hanmail.net Fax: 606 7796~7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B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앞

결혼 ▲이언우(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신애란씨 장녀 하얀
오늘의 행사 당직 변호사 정우중 062-229-1727
전용 휴대전화 010-2094-0420

일(토) 오전 11시 20분 광주시 광산구 입방울대로 광주드레드워딩힐/2층CN홀, 신부측 피로연 19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영빈관(구 영남농협) 동창회 ▲광주공고총동창회 제43차 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1(일) 오전 9시 30분 모교 대 운동장. 062-511-1946(총동창회사무실)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21(일) 오전 9시 30분 모교 운동장(우천시 다목적 강당)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8년 정기총회 및 회차 이·취임식=24(수) 오후 6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062)228-0197-8
부음 ▲박희서 전 무등일보 대표이사 별세, 박찬원(목포세한종합병원 대표원장)·찬훈(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지현(재미)씨 부친상=조선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금) 오전 10시 30분. (010-6460-8838, 062-220-3352)